

Apple社의 새로운 挑戰

1. Apple의 「1985」

Apple社의 「1985」는 지난 1월20일 스탠포드 스타디움에서 시작됐다. 슈퍼 볼 會場은 강한 열기와 흥분에 둘러 싸인 채 기다리고 있었다.

ABC 네트워크가 방영(프로그램 제공 광고 스폰서는 IBM)하여 회장내의 다이아몬드 스크린과 TV의 画面에는 1회뿐인 60秒 予定의 Apple社의 스포츠廣告(題目「1985」)를.

작년의 타이틀은 「1984」.

G. 오웰의 同名小説과 비교되는 광고 방송으로 Apple社는 1984년의 同社의 인기품목인 퍼스컴, Macintosh를 멋지게 등장시켰다. 「1984」에서 특특이 재미를 본 Apple社는 올해 두번째로 도전한 것이다. 그러나 制作費 150만弗, 廣告料 1秒에 100만弗을 뿌리는 「1985」1회뿐인 放映權 쟁취에 실패, IBM으로 방영권이 넘어가게 된 것이다.

관중들의 호기심 속에 드디어 「1985」의 스포츠 광고는 방영되었다.

회색빛 양복에 수건으로 눈을 가린 비즈니스

엘리트 집단이 흡사 쥐떼와 같이 해변의 낭떠러지를 향해 행진해 가고 兩者 택일을 강요당하게 된다. 「낭떠러지 끝에서 멈출 것인가, Mac (Macintosh) Office와 함께. 그렇지 않으면 낭떠러지에서 바다로 몸을 던질 것인가, IBM 製品을 사용하면서」.

반응은 두갈래로 나뉘었다. 「1984가 더 좋았다. IBM PC수요자를 멍텅구리 취급하고 있다. 「흥미 있었다. PC市場이 IBM과 Apple社로 2極化된 느낌이 잘 나타나고 있다」.

1985년의 슈퍼 볼의 프로그램提供權에 실패한 Apple社는 IBM의 「1985」의 60秒 스포츠 광고에 다음과 같이 대비했다. 8만5,000의 관객석에는 표면에 「슈퍼 볼」, 裏面에 同社의 「Apple」마크가 부착된 방석을 무료로 제공하여 IBM에 대해 無言의 처決 자세를 취했다.

2. Apple의 變身

1985년에는 Apple社가 커다란 變身을 기도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Apple II (II와 IIc)로 대 표되는 家庭用·學校用的 1人 1台의 Stand Alone型 Perscom메이커에서 OA用 비즈니스 워크스테이션의 Macintosh 메이커로 탈바꿈하려 하고 있다.

지난 1월 23일 Apple社는 同社의本社 所在地 실리콘 벨리의 Print Center에서 2,000명의 株主들의 출석하에 1985년도 株主總會를 열었다. 주제는 ①IBM과 「競争的 共存」을 확립하고, ②OA비즈니스 시스템으로서의 「Apple Office」를 실천한다는 두가지.

이미 OA를 지향하고 있는 Apple社는 「Apple II와 IBM PC가 각각의 분야에서 第1, 第2의 표준화를 실현했다고 하면 第3의 표준화를 확립하는 것은 Macintosh이다」(Steve Jobs Apple社 會長)라고 말하고 있다.

사실, 작년 1월 発売이래 Macintosh는 1년 간에 30만대가 팔렸으며 관련 소프트나 周辺機器도 347종류로 풍부해지고 있다. 사용이 편리하다는 점에 있어서도 수요자측의 평가로서 정착해가고 있다.

第3의 標準品으로서의 조건은 충분히 충족시켜가고 있다, 「컴퓨터 비즈니스는 潮流는 죽

음으로, 主流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면 Apple社의 現狀製品(表 1) 가운데서 Mac(Macintosh의 略稱)밖에 없다.

表 1. Apple社의 컴퓨터와 價格 (85年1月末 現在)

型	製 品	價格(市販)
学校·家庭用	Apple II e	995
	Apple II c	1,195
비즈니스用	Lisa	5,495
	Macintosh XL (元 Lisa 2/10)	3,995
	Fat Mac(512KB)	2,795
	Macintosh(128KB)	2,195
	拡張보드(128k→512k)	700

이와 같이 Apple Office 構想은 현재 그에 대한 實踐, 展開를 위한 서전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이 構想은 「IBM PC와 OA 네트워크를 共有하는」構想(그림 1)이며 그 主役이 Macintosh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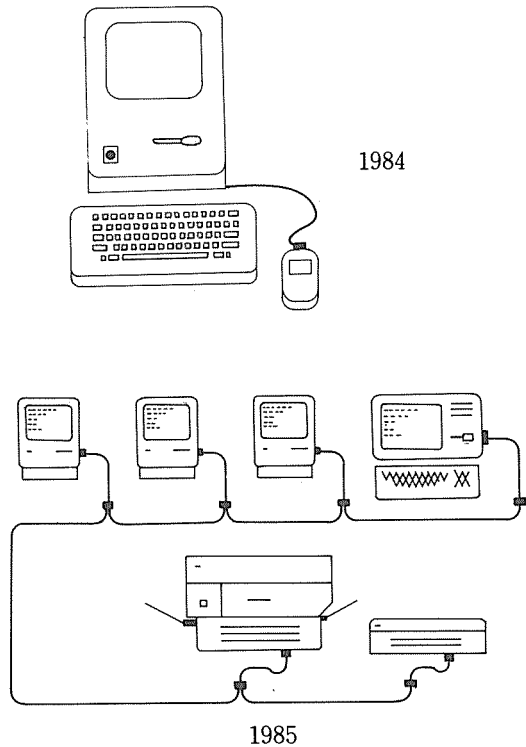


그림 1. Apple社의 變身 「1人1台」에서 「Apple Office」(OA時代의 워크 스테이션)으로

므로 Mac Office 계획으로 별칭하고 있다. IBM과 같은 씨름 관에서 共存(勝負)하므로써 Apple社로서는 緊張緩和를 基調로 한 競争과 補充해 나아가는 共存의 路線의 구축이 불가피하게 되고 있다.

美國의 Office Perscom 메이커의 市場勢力은 1位 IBM, 2位 Apple, 그 다음으로 DEC, HP, Tandy, NEC, COMPAQ, Wang으로 이어진다. (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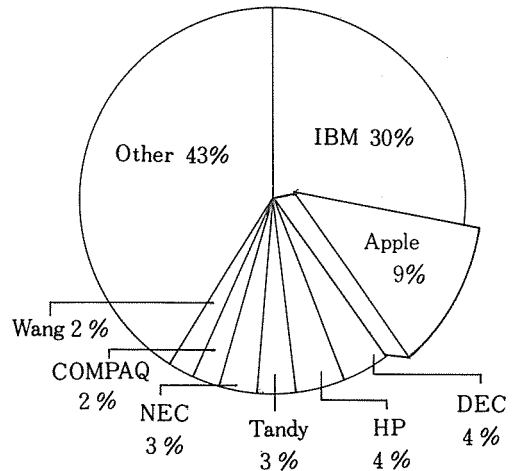


그림 2 1984年 오피스 퍼스컴全世界 售出占有 率

이와 같은 勢力圈에서 주목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勢力의 分布가 IBM圈과 非IBM圈(적어도 지금까지는)으로 2分化되고 있다는 것이다.

Apple社는 第2의 위치를 강화하면서 더욱 앞으로의 생존을 걸 수 있는 길을 탐색하고 있다.

IBM圈과 Apple圈으로 각각의 「標準PC」를 독자적으로 확보해 나가면서 兩圈間의 쌍방성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Mac계획의 최종 목표는 Mac을 OA네트워크의 Workstation製品으로 Fortune100개社로 대표되는 大企業(major Corporation)에 판매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Apple社가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다음의 네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 Mac-IBM PC通信 네트워크의 제공
- Mac을 하드로 하는 Application 소프트웨어 群의 增強
- 周边 / 關聯하드웨어 機器를 갖출 것
- Mac Compatible機가 整備될 것

3. Apple의 周辺

1985년초의 株主總會는 바로 Mac Office계획의 발표회가 되었다. 1984년도의 양호했던業績(表 2)에 이어 1985년도 1/4분기(1984년10월~12월)도 賣出高 69,800弗(前年同期比 2.2倍), 利益4,610만弗(同7.9倍)로 대폭적으로 신장되므로써 발표회의 중점은 Mac Office構想에 두고 그 실행계획이 순조롭게 소개되었다.

表 2 Apple社の業績 (單位：1,000弗)

	1983	1984	伸張率 (%)
売上高	982,769	1,515,876	+54
利益(稅引後)	76,714	64,055	-17
従業員數	4,645	5,382	+16
役員報酬(1984)			
J. Sculley(社長/CEO)		2,160	
S. Jobs(會長兼수석副社長)		334	
W. Campbell(營業担当수석副社長)		317	

Apple社の會計年度 10月~9月

먼저 Mac의 앞으로의 主力 Perscom은 512K, 2FDD의 Fat Mac(종래에는 128K, 1FDD의 Mac)로 한다. 이미 128K의 Mac를 보유한 수요자에 대해서는 메모리擴張보드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이 擴張方法에 있어서는 ①가격-종래에는 995弗이던 것이 지난 1월 이후 700弗로 떨어졌다. 그러나 아직도 高價이고 ②수요자가 代理店까지 직접 가져가야 한다는 두가지 문제가 있다).

또한 1월의 주주총회에서는 Apple talk(230비트/秒의 低速通信 네트워크)와 Laser Writer(高速그래픽 프린터/컴퓨터)가 발표됐다. 前者는 Mac와 IBM PC의 접속을 50弗의 접속키트의 附加로 가능케 하는 네트워크이며 32대까지의 機器접속이 되지만 Hard Disc의 Filing기능, Electronic Mail用, Multi-user用의 소프트웨어 등의 附加나 Ethernet의 40분의 1, PC네트워크의 8분의 1이라는 低速性 등이 앞으로의 과제로 되고 있다.

後者는 캐논製 Copier의 엔진을 核으로 구성한 高速·高解像度 그래픽 프린터이며 최고 31대의 Mac 등의 PC와 접속되지만 기능으로

는 다만 각종 규격의 文字를 선명하게 고속으로 출력한다는 것뿐이다.

그러나 이 프린터는 6,995弗로 꽤 高價이다. Apple talk나 Laser Writer도 다같이 3월부터 발매됐다.

또한 Apple社 자신의 직접 공급은 아니지만 제 3자로부터 Mac Office관련 하드/소프트製品이 올해에는 속속 공급될 것이다. 예를 들면 Apple talk用 10MB의 Hard Disc(파일 서버/Mac에 內藏可)가 General Computer Co와 Sunol System社에서 개발중이며 또한 IBM PC를 Apple talk에 접속 가능케 하는 IBM PC 附加用 하프 사이즈의 Option Card도 올해 3/4분기에는 공급될 계획이다. 모뎀의 톱 메이커인 Hayes Microcomputer Products社도 Apple talk用 모뎀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소프트웨어에서도 Fat Mac用의 多機能統合型 비즈니스 소프트웨어가 금년 중에 발매될 예정이다. IBM PC를 1983년 이후 가속적으로 보급케 한 Lotus나 Frame work의 Mac版이 바로 그것이다. Lotus로부터는 Jazz(595弗)가 3월에 Ashton Tate로부터는 Mac Frame이 유통에서 가을 사이에 발매될 예정이다.

또한 新Mac 路線이 굳어지기도 전에 Mac의 유사 퍼스컴이 출현되고 있다. 지난 1월에 라스베가스에서 열렸던 CES에서 Atari社(작년 7월에 Commodore社에서 인수)에서 Jackintosh(128K型 130ST, 512K型 520ST)를 발표한 바 있다.

벌써 Macintosh의 주변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美國의 PC業界에서 1위와 2위의 톱 메이커끼리 악수를 교환하려 하고 있다. 그것은 1위의 메이커 즉 「IBM이면 마음을 놓을 수 있다」라는 業界(需給兩側으로부터)의 평가에 대한 2위이하 메이커들의 새로운 挑戰이다. 실리콘 밸리를 본거지로 한 新興企業을 대표하는 Apple社가 Apple II의 비즈니스에서 보였던 成長力과 인기를 IBM과의 경쟁적 共存 속에서 새로운 美國인 비즈니스의 기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주목되고 있다.